



움직임의 삶

한상근/안무가, 서울시 무용단 지도위원

2000

년을 보내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올 겨울은 다른 어느 때보다 눈이 유난히도 많이 내리는 것 같다. 더불어 추위도 성큼 깊어지면서 외투의 옷깃을 바짝 여미게 한다. 화색빛 하늘로 부터 가늘게, 때로는 굵게 펼쳐이는 눈발은 흡사 한 폭의 풍경화 처럼 온 천지를 설국으로 만든다.

그 나부끼는 눈발의 몸짓은 「춤」의 움직임과 다를 바 없다.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춤」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믿고 있다.

「춤」이라는 예술장르가 아주 낯선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단지 호기심이나 동경어린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춤」의 기본이 되는 움직임은 실제로 우리들 삶의 근원 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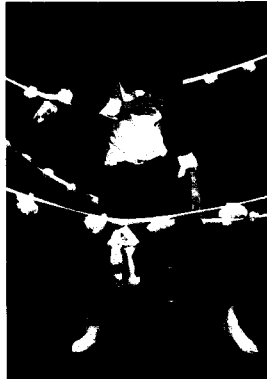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자라는 가운데, 이미 우리의 몸은 꿈틀대는 동작을 험없이 해가면서 태어나는 순간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태어난 후에도 몸의 자세를 쪽 뻗기도 하지 않는가. 나는 그 생명의 몸짓에서 「춤」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견한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둥그런 몸짓을 취했던 초보적인 움직임의 단계에서 두 다리를 동시에 치는 단계, 그 후로 시간이 가면서 걷고 뛰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리듬있는 동작이 만들어진다.

몸을 비틀거나 구부리는 곡선의 움직임, 불편한 자세에서 율게될 때의 안면근육의 묘한 움직임, 몸의 밀어내기와 치기, 누르기, 토닥거리기 등의 본능적인 동작들.

이러한 움직임들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 아주 밀접한 육체의 동작으로 실재없이 반복되어진다.

오랫동안 나는 이같은 생명의 몸짓이 주는 「춤」의 의미를 되새기며 보다 우리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생시킬 수 있는 「춤」의 작업들에 열정과 혼을 바쳐왔다.



연극이나 TV, 영화처럼 언어로 소통되는 예술이 아닌, 단지 움직임의 창조만으로 관객들과 만나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춤만이 가진 외로운 영역의 특성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춤 작업은 늘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적 삶을 추구해오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간 안무했던 통일에 대한 열원을 그린 '무초'('82), 5대 강대국의 경제, A.I.D.S, 핵에 대한 공포가 담긴 '적색경보'('87), 도시공간에서의 탈출을 표현한 '신기루'('87), 노동자들의 애환과 삶의 굴절을 그린 '비행'('92), 전봉준과의 투쟁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녹두꽃이 떨어지면'('94), 정신대 여인들의 슬픔을 말하는 '도라지꽃 할미꽃'('94), 가부장적인 남성의 횡포가 그려진 '꽃신 발자국'('99)등의 작품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들을 표현하려 애써온 「춤」의 작업들이었다.

나는 그 「춤」의 창조 속에서 매순간 삶의 에너지를 충만한 행복감으로 누려간다.

또한 술한 반복동작으로 연습하는 가운데 생기는 시행착오 속에서 비로소 생명체가 가진 움직임의 삶을 배워 가는 것이다.